

장흥군, 청정 해조류 산업 중심지 도약한다

중기부 공모 '시군구 연구산업육성 프로젝트' 예비 선정 무산김·매생이 등 고도화·가공·유통·브랜드 강화 계획

장흥군이 청정 해조류 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3일 장흥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7년 시군구연구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모에 예비 선정됐다. 시군구연구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과 농·어촌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생활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 육성 전략을 기획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지원과 함께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올해 사업은 외국인력 공급(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광 활성화, 농촌협약, 어촌뉴딜 등 다양한 정책을 연계해 산업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점이 특징이다. 또 부처별 공동 평가를 통해 정책 연계 가능성과 사업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군은 청정 해조류인 무산김, 매생이 등을 중심으로 한 해조류 산업 고도화와 전·후방 연관기업 성장지원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지역 해조류의 고부가가치화, 가공·유통·브랜드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관련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식품·바이오·관광 산업 고도화, 제조업 디지털전환 및 공정개선 등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단순 기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디자인·브랜드, 체험·관광, 인력양성 등과 연계해 추진된다. 군은 향후 전남테크노파크, 전남바이오

진흥원과 협력해 사업계획 고도화를 위한 기획 컨설팅을 추진하고, 지역 기업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청정 해조류를 중심으로 한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함께 육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부서간 협업과 중앙부처 연계사업을 적극 활용해 지방소멸 대응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정명수 기자 jms05031@gwangnam.co.kr



고흥, 영농폐비닐 집하장 확충 농촌환경 오염물질 예방·수거

고흥군은 농촌환경 오염 예방과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영농폐비닐 집하장 176개소에 더해 신규 집하장 4개소를 설치하고 노후 집하장 3개소를 보수한다.

군은 농업인의 배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을별로 영농폐비닐 집하장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보수를 병행해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농업인의 자발적인 수거 참여와 농촌 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을 kg당 100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299개 마을에서 1874t을 수거했다. 영농폐비닐 집하장은 농가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일정 장소에 모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불법 소각 및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역할을 하고 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순천, 일자리 확대 '청년 도약' 250억 투입...25개 사업 추진

순천시는 청년층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올해 25개 사업에 총 2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는 미래전략산업과 문화콘텐츠 분야 등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해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순천형 신규 사업인 '어드림사업'을 신설했다. 총 10억8000만원을 투입해 문화콘텐츠, 우주항공방산 분야 기업이 청년근로자를 신규 채용 시 인건비를 일부 보조해 청년 고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청년고용 정책으로 마련됐다.

'문화콘텐츠기업 종사자 일자리 지원 사업'에는 14억4000만원을 투입해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이 경력직 근로자 채용 시 인건비 지원으로 고용 창출에 나설 예정이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과 친환경 자연순환형 기업인 ㈜그리코가 최근 ㈜그리코 화성공장에서 푸드테크 산업 육성과 바이오 기반의 '친환경 포장 기술'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 사진제공=장흥군청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친환경 포장기술 연구 (주)그리코와 업무협약...농산 부산물 활용 모델 구축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과 친환경 자연순환형 소재 전문기업인 (주)그리코가 푸드테크 산업 육성과 바이오 기반의 '친환경 포장 기술'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

3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버섯산업연구원과 (주)그리코는 최근 그리코 화성공장 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산 부산물을 활용한 차세대 친환경 포장 원천기술 확보와 산업화 모델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이 들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플라스틱 규제 강화와 탄소중립 요구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 식품 용기 및 포장재의 대안으로 요구되는 시점에서 마련됐다.

그리코는 잉여 쌀과 농수산 폐자원을 활용해 자연분해, 재사용이 가능한 가공 원천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으로, 개발한 소재는 미세플라스틱이 전혀 발생

하지 않으면서도 최고 120도 이상의 뛰어난 내열성을 갖추고 있어 배달 용기나 식품 포장 필름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적용성과 독보적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농산 부산물 및 잉여 곡물을 활용한 순환형 친환경 포장 소재 개발, 스티로폼(EPS) 대체용 버섯균사체 기반 성형 포장재 연구, 생분해성 포장재 실증 연구, 지역 맞춤형 친환경 포장 산업 모델 구축,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 유치에 위한 기술 교류 및 공동 선제 대응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경길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장은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을 장흥에 유치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정명수 기자

곡성 지역 농산물 가공 상품화 '가시적 성과'

딸기잼 제품 출시...“농가 창업·판로 확대 지원”

곡성군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해 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딸기를 활용한 딸기잼 제품을 출시하며, 농산물 가공 상품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제품은 곡성 지역 농업인이 이현 로와농장 대표가 재배한 딸기를 원료로 개발한 가공식품으로, 농산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브랜드화·판매까지 연계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제품 개발에 참여한 농업인은 직접 재배한 딸기를 활용한 브랜드 제품을 선보이며 농업 분야를 넘어 식품업 창

업에 나섰다. 또 출하 시기가 시장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농산물도 가공 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농산물 활용 범위를 넓히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딸기잼은 딸기 80%, 설탕 20% 단 두 가지 원료만을 사용해 제조됐으며, 펙틴 등 별도의 첨가물 없이 딸기 본연의 맛과 풍미, 과육 식감을 살린 점이 특징이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제조공정과 품질 구현, 포장 구성 등 상품화 전반을 함께 지원하며 제품 완성도를 높였다. 해당 제품은 곡성물, 지역농협 로컬푸드 판매장, 자사 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이현 로와농장 대표는 "직접 재배한 딸기로 제품을 출시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딸기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 식품 개발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ews1@



여수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진행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현장 애로사항 청취

여수시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장 민원상담을 청취했다.

이번 상담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산업 종사자와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협업기관도 참여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경영 애로와 채무 조정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후속 지원 방안도 함께 안내했다.

특히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현장을 찾아 복지 취약계층 2가구와 상담을 진행했으며,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일연 위원장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지역 경제와 산업을 이끄는 주요 기반인 만큼, 현장의 애로사항이 적기에 해소될



여수시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장 민원상담을 청취했다. 사진제공=여수시청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광남일보 골목상권 활성화 연중캠페인

광주·전남의 골목경제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골목경제는 지역공동체의 뿌리이자 **상생경제**입니다.

주민과 상인이 **상생 협력**으로 소비자에게는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상인은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은 선순환 구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중심으로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골목형 상점가가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광남일보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연중 캠페인을 통해 지역상권의 활력을 불어 넣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주최 **광남일보** **도리투데이**

주관 **광남일보**

후원

